



기독일보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41호

“위태로운 다음세대 문제, 교회가 해결 앞장서야”

한복합, ‘위태로운 다음세대 해법은 있는가’ 주제로 월례회 개최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임석순 목사, 이하 한복합)가 최근 은혜광성교회(담임 박재신 목사)에서 ‘위태로운 다음세대 해법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5월 조찬기도회 및 주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기도회는 지형은 목사(부회장, 성락성결교회 담임)의 사회로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담임)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여주봉 목사(포도나무교회 담임)가 ‘다음세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으며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합심 통성기도를 했다. 이어 박재신 목사가 ‘다윗의 가정을 교훈삼아(에베소서 6:2-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다윗의 가정의 아픔을 보면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것에 어려움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된다. 부모는 의무적으로 공경할 수는 있지만, 아내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사랑을 전해 주는 것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사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이 사랑을 당연히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표현하여 행동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가정은 진정 행복한 가정으로 부모님은 공경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은 부모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발표회에서 곽혜원 교수(사회부위원장,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대표, 경기대 초빙교수)가 ‘청년세대 고독과 은둔 실태와 대처방안, 조현섭 교수(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한국중독융합학회장)가 ‘가정 안에 파고든 중독 문제, 현황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곽혜원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위안 길에서 서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기독교의 생사 공동체가 절



곽혜원 교수는 “한국 기독교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생사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죽음의 기운이 횡행한 이 시대에 생명의 기운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실화 요청되는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거듭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팬데믹 여파로 대다수 취약계층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생존 기반을 잃은 실업자 및 실직자들이 극심한 생활고에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고민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 20년 OECD 1위의 비상상황이던 자살률이 2018년 이후 가파르게 하락세를 접어들었다가 또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더욱 근심스러운 현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그동안 감추고 견디고 참아왔던 모든 문제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자연된 자살’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2003년 홍콩 사스(SARS),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이 발생한 이후 자살률이

시태 종결 이후에 급증한 바가 있다. 급증 이유는 재난을 극복하느라 치열하게 살아왔음에도 호전되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며 생명의 끈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팬데믹 종결 후 자살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그 후폭을 견디내고 ‘우리’라는 끈끈한 유대감으로 서로 생명을 감싸 안는 공동체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장기간으로 인한 생활고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한국 기독교 생사 공동체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초대 기독교 역사가들이 증언하듯이 ‘삶과 죽음의 주인 그리스도(로마서 14:9)를 신앙하는 초대 교인들은 당시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던 도시에 남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폈다”고 했다.

아울러 “또한 초대 교인들은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당했던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고 보살핌으로써 당대 비인간적인 사회 분위기를 쇠신했다. 기독교의 발흥과 확립은 기존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는데 특히 치명적 전염병이

발생한 결과 대다수 공동체가 신뢰를 잃은 와중에 초대교회는 급성장했고 이 새로운 공동체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다. 삶과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21세기 기독교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했다.

끝으로 곽 교수는 “한국 기독교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생사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죽음의 기운이 횡행한 이 시대에 생명의 기운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삶의 의지를 잃어버려 스스로 구제할 여력이 없는 이들이 다시 소생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의 견진과 구원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바로 그 누군가의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사려 깊은 역할인데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에게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본래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살 및 고독사 희생자의 절대 다수가 스스로를 구제할 만한 여력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유념할 때 이들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에 대한 자립자조 의지를 심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3면에 이어 최승연 기자

“신사참배 거부해 교단 폐쇄... 그 역사와 신앙 계승하자”

기침, 신사참배 거부 교단 기념 감사예배 드려

7자 교회터 땅밟기 및 이종덕 목사 순교터 기도회도 진행

기침 총회가 최근 충남 논산시 강경읍 소재 강경침례교회에서 ‘2024 신사참배 거부 교단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침에 따르면 일제 치하에서 교단 지도자 32명이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해 1944년 5월 10일 함흥재판소에서 ‘교단폐쇄령’이 내려졌다. 이에 기침은 고난의 역사를 기리고 그 신앙 정체성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지난 2015년 제105차 정기총회에서 ‘신사참배 거부 교단 기념 일’ 제정을 결의했다. 이후 매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날 감사예배에선 총회 교육부장 박보규 목사의 사회로 농어촌부장 황인전 목사가 기도했고, 전(제24·25대) 총회장 오관석 원로목사가 ‘우상을 섬기다 패망한 므낫세(역대하 33:1-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경동 목사(중문교회)는 환영사를 전했다.

오관석 목사는 설교를 통해 “불순종했던 므낫세가 환란을 당한 이후에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돌아보아야 때”라며 “부모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알고 깨달으며 믿음의 길로 가야 한다. 우상을 세울 때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상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철저히 배격하고 거부해야 한다. 그 신앙의 유산으로 세워진 침례교단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침례교 신앙 역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역할을 감당해 온 공로로 (사)침례교역사학회 이사장 임공영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강경교회 남주희 장로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밖에 피영민 총장(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축사와 한병수 원장(강경역사보

화연구원의 격려사가 있었고, 총회장 직무대행 제1부총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일엽 목사의 인사 및 광고 후 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기침은 교단의 체계적인 역사 연구를 위해 (사)침례교역사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부 순서로는 ‘역녀봉 7자 교회터 되찾기’를 위한 땅밟기를 진행했다. 강경의 역녀봉 7자 교회는 1896년 2월 설립된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다. 현재 논산시 소유 공원으로 관리되는 역녀봉 일대 토지(15,615.6㎡/4,732평)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몰수됐다. 이날 땅밟기 행사는 7자 교회터 및 역녀봉 일대 토지를 되찾아 성지화해 침례교회의 항일 운동 정신을 후대에 전하고자 기획했다.

3부 순서로 이종덕 목사 순교터에서 오지원 교수(한국침례신학대학교 겸임교수)의 순교역사 강의가 있었고, 총회 임원들의 진행으로 순교자들의 후손들, 침례교단과 교회, 다음세대와 나라를 위해 30여 분 동안 기도회를 진행했다.

이종덕 목사는 강경교회 담임이자 교단 총회장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피난 대신 부목사였던 김장배 목사와 함께 손으로 작성한 명함을 들고 인민위원회 내무서 등을 찾아가 신분을 밝히고 전도했다. 그해 9월 28일 공산당이 퇴각하던 날 밤 이종덕 목사는 이들에게 체포되어 금강 변 갈대밭에서 총살을 당해 향년 66세에 순교했다.

기침은 “침례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교단이 폐쇄되고 재산이 몰수되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며 “이 아픔이 오늘날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간증이 되길 바란다. 기침은 하나님 나라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앞장서 기도하는 교단으로 당당하게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기침은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로고스홀에서 교단 목회자와 신학생을 대상으로 ‘2024 한국침례교회 역사 포럼’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와 한국침례교의 저항’이라는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한국침례교회총회가 최근 충남 논산시 강경교회에서 ‘2024 신사참배거부 교단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침



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침



UPPERHOUSE



“자연이 결국 최고의 럭셔리다”

강남권에서 만나는 5만 6천여평의 대규모 블록형 타운하우스 단지

대규모 호텔급 커뮤니티 특화시설 제공 (스파, 사우나, 레스토랑 등)

1층 단독 정원 사용, 3층 단독 루프탑 사용

국내 최고의 조경, 건축, 설계회사 참여



유튜브에서 “생생한방목”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666-1691

※상기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